

수원교구 역사총서 6~11

《병인치명사적》(대조역주, 전 6책)



연구소 설립과 함께 뿌려진 씨앗, 17년 만에 결실을 맺다

2003년 수원교회사연구소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기해·병오~병인 순교자 증언 자료들을 판독·대조·역주하여 편찬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순교자 증언록’ 간행은 수원교구 설정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총서’에 포함되었고, 2011~2012년에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2가 먼저 간행되었습니다. 이후 수 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12월에 《병인치명사적》(대조역주본 전 6책)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설립과 함께 시작된 병인 순교자 증언록 편찬이 17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병인치명사적》은 1866년(병인)부터 1870년대까지 이어졌던 대박해 와중에 순교하신 신앙선조들의 삶과 영성, 그리고 순교 과정에 대해 직접 목격하거나 이를 전해 들은 동료 교우와 후손들의 증언기록입니다.

《병인치명사적》은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박순집 증언록》, 《병인치명자전》과 같은 성격의 자료이면서 현재 남아 있는 교회 측 병인 순교자 관련 자료 중 가장 방대하고 중요한 자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의 ‘24위 성인’과 ‘20위 복자’, ‘95위 하느님의 종’의 시복시성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수집되고 활용되었습니다.

《병인치명사적》은 증언기록 이외에 베르뇌 주교의 사목교서, 1882년 갈매곶 순교자 이장 보고서 등의 교회 측 자료라든가 순교자와 관련된 관찬 기록, 병인양요 관련 글, 일본인 학자의 한국천주교 관련 저술까지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해진 고어체와 한문체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원문의 한글고어와 한문 등을 판독하여 현대어로 바꾸고 자세한 주석을 붙였으며, 각종 도표와 색인 등을 첨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편찬했습니다.

《병인치명사적》 대조역주본은 원본[전 24권 중 1~2권 유실] 3~24권 중 3~6권을 제1책으로, 7~14권을 제2책으로, 15~20권을 제3책으로, 21~22권을 제4책으로, 23~24권을 제5책으로 분권했으며, 각종 도표와 용어사전, 색인을 종합하여 제6책 부록으로 구성했습니다.

병인 순교자 관련 자료 중 가장 방대하고 중요한 《병인치명사적》의 대조역주본은 한국천주교회사와 병인 순교자에 관심 있는 독자들과 연구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수원교구와 수원교회사연구소는 《병인치명사적》에 이어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을 대조·역주본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병인치명사적》(대조역주, 전 6책)의 본문 내용은 순교자의 사적(史蹟)에 따라 나뉩습니다. 원문을 판독하여 띄어쓰기한 부분('고어원본'), 판독된 원문을 현대어 표기로 바꾼 부분('현대표기본'), 원문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고 역주한 부분('역주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어원본과 현대표기본은 책을 펼쳤을 때 왼쪽 면 위아래로 배치하였고, 역주본은 오른쪽 면에 배치했습니다. 원문 문장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독자가 읽기 편하게 현대표기본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역주본에서 순교자 사적마다 내용을 압축한 도표를 제시했습니다. 도표에는 순교자, 순교지역, 순교형태, 순교일(음력, 양력), 나이, 증언자, 목격자 등을 정리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순교자가 처음 언급될 때 그 이름을 별도의 서체로 구분했습니다. 제1책~제5책에 수록된 순교자 사적 도표를 권별로 구분하여 각 책의 해제 다음에 도표로 첨부했습니다.

제6책 부록은 역주본 1~5책에 수록된 순교자에 대한 증언 내용을 크게 이름순과 지명순으로 나누어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I 장은 순교자의 이름순으로, II 장은 증언·목격증언자의 이름순으로 배치했습니다. III 장은 순교지를 지역별로 나누어 해당 지역에서 순교한 순교자의 이름을 제시했고, IV 장은 순교자·증언목격자와 관련된 지명(순교지 제외)을 가나다순으로 배치했습니다. V 장은 《병인치명사적》과 다른 교회 자료를 비교한 내용을 도표로 제시한 것입니다. 용어사전도 별도로 만들어 역주본 1~5책에서 자주 나오는 인명, 지명, 용어를 별도의 도표로 만들어 가나다순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색인은 역주본 1~5책에 나오는 단어, 항목 등을 종합하여 인명·지명·기타로 분류하여 제시했습니다. 인명은 순교자와 목격·증언자를 구분했고, 지명은 당시 그 지역이 속한 행정구역을 병기했습니다. 각 색인 항목마다 쪽수와 함께 역주본의 책수도 표시했습니다.